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전도 제목:가장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

성경:마태복음9:35-38

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9:35-38)

전도는 가장 가치있고 보람있는 일이다.

우리가 마귀를 이기고 항상 승리할 수 있으려면 전도하면 된다.

우리가 항상 기쁘고 형통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전도하면 된다.

우리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전도하면 된다.

물론 전도 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더 많은 핍박을 받는다. 마귀에게.

전도하면 무시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전도하지 않으면 더 많이 무시당한다. 마귀에게.

전도하면 여러 가지로 부산해야 하고 더 바쁘게 살아간다. 그러나 전도하지 아니하면 전도할 시간도 없어진다.

지금은 전도해야 할 때다.

왜냐면 한국은 여러 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위기는 오직 전도함으로만 해결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전도의 매개가 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써왔다.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여물어 가고 있으니 전도에 힘을 써야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갖추어 왔다.

1. 제자훈련, 군사훈련, 일터사도훈련을 준비하였다. 이제 충분히 준비를 갖추었으니, 전도하러 나가서 일꾼들을 추수해야 한다. 우리 교회의 각종 훈련들은 예수님의 참 제자를 양성하는 훈련이다.

-신학적인 기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문에서 가장 업데이트된 정보들을 갖추고 있으며,(1:1 or 1:2양육, 코칭, G12이론, 두날개이론, NCD이론, WLI이론, 4차원의 영성, 긍정적 태도 등)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되어나갈 것이니 든든한 재산이 된 셈이다.

2. 알파에 접목된 리바이벌 페스티벌과 카페 오아시스를 통한 커피 문화 보급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알파의 특징은 변증법적 이해에 있다. 이 말은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오해하고 있거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명쾌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알파에 자주 참석하는 것 만으로 이슬비에 옷 젖듯이 기독교에 젖어들 수 있도록 한다.

3. 이제 내년에 갖추게 될 Who made the world를 통해서는 주일학교 부흥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요한복음을 통한 성경 공부를 도입하게 되면 중고등부를 위한 프로그램도 완성될 것이다.

4. 우리는 수년간 셀모임을 통해서 각 셀 단위로 협력하며 힘을 집중시키는 훈련을 해 왔으므로 이제 전도를 통해서 셀 번식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다.

(게다가 사모님은 WLI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고, 모세와 향도 신학과 기독교교육을 통해서 더욱 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 IHOP을 통해서는 청년들이, 이곳에서는 비전 선교단이 준비되어 가고 있다.)

물론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우리가 앞으로 채워가면 되는 것들이다. 또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도록 기도해 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으로 지금까지 왔다. 앞으로는 더 강력한 도우심을 베푸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각 셀들은 전도에 매진할 때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며,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현재 한국은 영적으로 허덕이고 있다. 교회는 율법주의에 의해서 쪼그라 들고 있다. 돈과 금융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금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조금만 노력하면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그러나 가능성이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은 가능하고 강력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래도 아무런 수고도 없이 승리를 거둘수는 없다.

좋은 가치, (예를 들면 미덕이나, 아름다운 유산, 생명 넘치는 지구)는 방치하거나 그냥 자연에 맡기면 되는게 아니다. 왜냐면 악한 마귀가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뒤편지 망가뜨리려고 애를 쓰기 때문이다.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전도는 성도 천사 양동 작전陽動作戰 이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우리가 전도할 때 천사가 추수한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기도하자.

추수할 일꾼이 오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지를 접어야 한다.

추수할 일꾼은 왔는데, 우리가 전도를 나가야 추수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자.

10000장 전단지를 뿌리면 두명 연락 왔다고 한다. 어떤 사람 광고 전단지를 뿌렸는데 그렇다고 한다.

그런데 교회 전도지는 몇천부 뿌리는데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또 전도는 여러교회가 함께 해서 효과를 본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면 그동안 전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전도지를 뿌린 장수를 계산해서 점수에 넣을 계획임. 1장에 1점, 100장에 100점. 출석 1명당 100점. 계속 출석하면 매주 50점씩)

반드시 짝을 찾아서, 전도지를 접고, 기도하고 출발, 셀 리더에게 몇장 전도 보고로 마칩. 보고 없으면 무효. 성탄절 시상.

<찬양예배>

주제:전도 제목: Who made the world 말씀:
사도행전2장1-12절

-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5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 6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 7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 8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나
- 9 우리는 바대인과 메대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 10 브루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 11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 12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행2:1-12)

이번주 이벤트, 부천 시민을 전도하자! 시상은 12월 25일 1등과 나머지 차이는 두배.

정철영어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힘을 얻어 영어성경학교를 개발.
언어의 원리를 캐고 밝혀진 원리로 쉽게 어학을 연구.
성경말씀을 있는 그대로 삶에 적용하고 받아들이면서 학문을 개발함.

언어는 돈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것 두가지. 하나는 성령,
또 하나는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이 두가지가 회복됨. 성령을 주셨고, 방언을 주심. 이 방언은 천국방언으로서의 역할도 하겠지만, 원래 사도행전 2장에서 주신 방언은 다른나라 말로 방언하는 것이고, 복음전도와 관련있다.

정철 선생은 어순의 문제와, 청크단위식 표현, 단순한 문법구조를 통해서 복잡한 문법을 날려 버렸다. 먼저 듣고, 말하고, 쓰는 방식이다. 또 쓰기와 읽기는 다르다.

한국말에도 두음법칙, 자음접변, 구개음화가 있다.

선린교회라고 쓰고 설린교회라고 읽는다. 독립은 동남으로 읽는다.
세상에서 한국말이 제일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나 원리를 알면 쉽다.

영어는 한국말보다 더 쉽다. 쉬운 말부터 배워가면 된다. 읽기가 두려운 사람들도 있는데, 한글 읽히듯이 하면 어려울 것도 없다.

Who made the world에서는 영어만 가르치지 않는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어린이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핵심 가치를 가르친다.

우리아이가 달라졌어요? 여기에 오면 된다.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다.

억지로 배우려고 하지 않아도 배우게 되고, 재미있게 배우니 훨씬 학습의욕이 일어나고 발표를 하게 되니 지도력이 향상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학교를 살리고 어린이를 살리는 구국의 마음으로

로 이 프로그램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것이다.

어떻게

기도하자.

어린이를 전도하자.

토요일은 정식 성경학교

주일은 누구나 복습학교

늦어도 2년이면 아이는 놀랍게 변하게 된다.

그러면 아이는 어느 영어 학습이나, 영어 학원에서 우등생으로 자라게 된다.

이것이 영어 학습의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핵심적인 도움을 베풀 것이다.